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남자의 향기

유쾌한 꽃미남

대만 팬미팅 이민호 "연말 신인상 꼭 받고 싶다"

"남자다운 역할도 하고 싶고 멜로 연기도 하고 싶고. 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지만 아직은 어린 만큼 유쾌하고 밝은 드라마가 맞을 것 같아요."

'꽃보다 남자'(이하 꽃남)로 스타덤에 오른 이민호는 최근 대만 타이베이의 웨스틴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이날 저녁 대만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팬 미팅에 앞서 열렸다.

그는 지난 3월 종영된 꽃남이 시청률 35%에 육박하며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차기작 선정에 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 그를 괴롭히는 가장 큰 고민과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묻는 말에 모두 똑같이 차기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주위에서 (차기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부족한 연기력도 인정받아야 하고 시청률도 잘 나와야 하고. 그러면서 드라마의 작품성도 있어야 하잖아요. 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칭찬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연말에 KBS 연기대상 신인상을 받고 싶다는 그는 현재 2~3개 작품을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꼭 드라마로 시청자들에게 인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호는 현재 가장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로 '아이리스'를 꼽았다. 만일 '아이리스 2'가 제작돼 자신에게 출연 요청이 들어온다면 하고 싶을 정도라고.

"특히 이병헌 선배님의 연기는 너무 훌륭해서 존경할 정도예요. 이 선배님이 부럽다니까요. '사탕 키스'요? 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하하." 그는 이와 함께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오른쪽 다리뼈 철심 제거수술을 받느라 차기작 결정이 미뤄졌다고 전했다.

"다리 수술은 다 끝냈어요. 사실 조금 (다리가) 안 좋기는 해요. 비가 오면 무릎이 굉장히 시리거든요. 연골을 한 번 파손되면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술이 다 끝났으니) 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국내외 팬 미팅 등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짬이 나면 영어와 일어 등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스태프들과 함께 의류 쇼핑을 즐긴다고 했다. 또 동료 연기자인 김범, 정일우와 함께 스키장을 찾는다고 한다.

"외국에서 팬 미팅을 하다 보니 언어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영어와 일어를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영어는 영문학을 전공하는 친누나한테 배우고 있어요. 실력이요? 한 3살배기 아이 정도? 아직은 그 수준이에요. 하하" /연합뉴스

든든한 연하남

'살맛납니다' 이태성 "애교 장면 촬영 힘들었죠"

"제가 연상인 누나를 따뜻하게 포용해줄 수 있을 것 같은가봐요"

MBC 일일드라마 '살맛납니다'에서 '연하남' 장유진 역으로 출연 중인 이태성(24).

연하남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장난끼가 다분할 것 같았지만 그는 인터뷰 내내 진지했다. 드라마에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상인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꿋꿋이 지켜나가려는 유진이의 모습과 비슷했다.

그래서인지 유독 그는 '살맛납니다'뿐 아니라 영화 '사랑니'와 드라마 '9회말 2아웃'에서 각각 김정은과 수애의 연하 남자친구로 잇따라 출연했다.

"그동안 연하남을 여러 번 연기했는데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연하남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연상인 여자친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남성적이고 든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게 비록 문득문득 보이는 것일지라도요. 제게서 그런 면이 좀 보이나봐요"

연기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5년 동안 혼자 살다보니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여온 생활력 때문에 든든한 남자의 분위기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장남으로서의 책임감도 몸에 배어서인 것 같다고.

"'사랑니'와 '9회말 2아웃'에서는 철없는 소년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살맛납니다'의 유진이는 사회생활 하는 성인인데다 자기 주관도 뚜렷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연하남 캐릭터지만 그 속에서 저도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매사에 진지하고 열심인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에피소드 두 가지.

'살맛납니다'가 전문적인 의학 드라마는 아니지만 유진이의 직업이 성형외과 의사인 만큼 촬영 전 진짜 성형외과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수술 방법과 그에 따른 의사들의 고민 등을 들었다고 한다. 성형수술과 관련된 BBC의 다큐멘터리도 부지런히 찾아봤다.

또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다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을 위해 추운 겨울 밤바다에 거침없이 뛰어들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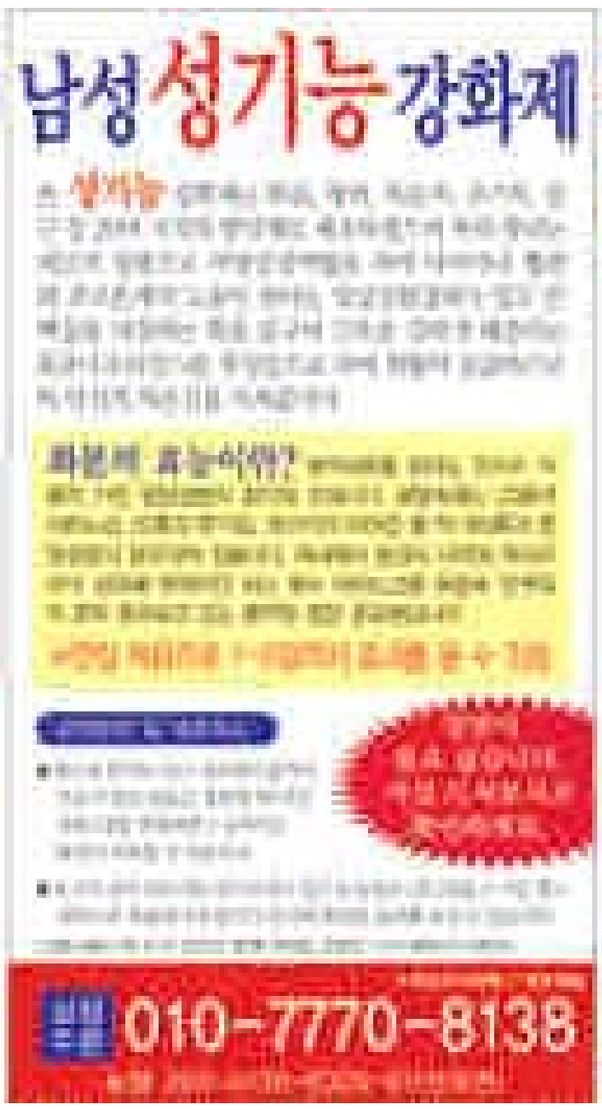
"밤 9시 강원도에서 촬영했는데 하필 풍랑주의보가 내린 날이었어요. 파도가 3m 가까이 일었거든요. 게다 촬영지가 해수욕장이 아니어서 바다 밑이 서서히 낮아지는 게 아니라 뚝 떨어지는 곳이었거든요. 와~ 이러다 죽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 때 스태프들도 겁을 먹었는지 아무도 바다 가까이 안 오더라고요. 하하"

진지한 성격 때문에 연상의 여자친구인 홍민수(김유미 분) 앞에서 애교 부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도 힘들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KBS2 새 월화드라마 '공부의 신'으로 확정

방송을 앞두고 제목이 정해지지 않았던 KBS 2TV 새 월화드라마의 타이틀이 '공부의 신'으로 확정됐다.

제작사 드라마하우스는 '내년 1월4일 첫선을 보일 월화드라마의 제목이 '공부의 신'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일본 미타 노리후사의 만화 '드래곤 사쿠라'를 원작으로 한 '공부의 신'은 일본에서 2005년 TBS 드라마로 제작돼 인기를 얻었다.

파산 직전의 병문고를 회생시키기 위해 1년 안에 명문대 합격자 배출에 나선 열혈 교사들과 오합지졸 학생 5명의 이야기로 김수로, 배두나, 변희봉, 유승호, 고아성 등이 출연한다.